완도군, 치유페이 운영 지역 경제 활성화 보탬

식당 숙박 등 골목 상권 도움
3~5월 18억여원 소비 이뤄져
하반기 계절별 테마 정책 운영
관내소비 효과 확산 제도 개편

전라남도 완도군이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완도 치유 페이' 인센티브 사업이 3개월 만에 23억원 이상의 소비를 이끌어 내며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 치유 페이'는 지역 해양·숲 등 웰니스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완도치유페이를 통해 23억 8970만원의 소비가 발생했으며 이 중 18억6750만원이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됐다.

총 소비 금액은 3월 2억6000만원에서 5월 12억6000만원으로 약 4.7배 증가했다. 여행 경비 지원 신청 역시 870팀에서 3577팀으로 4배 이상 증가하며 '완도 치유 페이' 참여도도 높았다.

관광객 소비 분석 결과, 식당에서 7억 9000만원, 특산품 매장에서 5억8000만원, 숙박에서 4억3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상공인 업종 중심의 소비로 직결돼 골목 상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게 완도군의 설명이다.

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완도 치유페이 인센티브 지원 조건을 보완해 완도 전 지역으로 소비 효과가 확산되도록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하반기에도 계절별 테마 등 다양한 이센티브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소비로 연결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정책 방향을 정립한 결과다. 본 사업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효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관광객이 만족하고 지역 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영암군,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가축시장 재개장…주 3회 운영

전라남도 영암군은 일부 농가를 제외한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16일 가축시장을 재개장했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지난 3월 13일 구제역 발생 이후 94일 만이다.

군은 지난달 21일 군 내 한 농가에서 무증상 구제역이 발생해 소를 살처분한 뒤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자 전날 이동제한 해제를 결정했다.

자연감염항체 증가 농가 등 8개 농가는 앞으로 3주간 이동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영암 도포면의 방역대 이동제한이 선별 해제됨에 따라 3월 10일 이후 폐쇄됐던 가축시장도 개장했다.

축산농가는 그동안 송아지를 제때 출하하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됐다.

매주 월요일 문을 열던 가축시장은 농가 경영안정, 한우 거래 확산 등 지역 축산업 활기를 위해 주 3회 운영된다.

이날 재개장한 가축시장에는 138개 농가의 송아지 348두가 거래됐다.

영암지역은 1237개 농가에서 소 6만 1354마리가 사육 중이며, 이번 구제역으로 소 451마리가 살처분됐다.

영암=한교진 기자

초등학생 대상 해양환경 교육
목포해경, 지구온실화 심각성 전파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가 지난 11일 목포서산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 교육을 실시했다.

16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착한 탄소 '블루카본' 의미 이해 △해양환경 보전 필요성 및 방법 교육 △지구온실화 심각성 설명 및 예방 방법 교육 △해양경찰 내에 소속된 '해양환경감시원'이라는 직업을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해양환경보전 관련 그림 그리기 및 4행시 짓기이벤트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상품을 주는 등 즐거운 교육 시간을 가졌다.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등하교 하는 서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번 환경교육으로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평소에 환경보호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강진군 강진읍사무소 직원들이 지난 11일 화전마을 딸기 재배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강진읍,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활동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사무소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활동이 적기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농촌일손돕기 활동에 나섰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진읍 화전마을 딸기 재배농가를 찾아 일손을 지원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허리디스크 수술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김지효농가의 시설하우스(딸기) 2동, 약 600평(1997㎡) 규모의 딸기 모종 제거 작업이 진행됐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강진읍장을 비롯한 읍사무소 직원 12명과 강진군청 건설과 직원 14명 등 총 26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딸기 수확이 끝난 하우스 내 묵은 모종을 제거하고 제거한 모종들을 수거해 운반하는 등 다음 작기를 위한 재배지 정비를 도왔다.

강진군은 6월까지 농촌일손돕기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하며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농촌 일손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임창복 강진읍장은 "이번 딸기 모종 제거 지원이 우리 강진읍의 일손 취약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필요한 농가에 일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안정과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시행

최대 70만원 지원

전라남도 강진군이 지난 9일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고 강진군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 에너지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강진군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 지역으로 냉·난방 에너지에 취약한 1~2인 고령 독거세대가 많아 이번 바우처 사업이 군민 체감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29만 5200원부터 최대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의 난방방식에 따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형)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고령자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친족 대리 신청 및 공무원 직권신청 등으로 가능하다.

정보 변동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은 기존 대상자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군은 읍·면 맞춤형 홍보와 마을이장, 복지사 간 연계를 통해 수혜 누락이 없도록 촘촘한 행정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을 보다 쾌적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들이 차질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특이민원 폭언·폭행 대비 모의훈련
무안군,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전라남도 무안군은 지난 13일 군청 민원실에서 무안경찰서와 함께 특이(악성)민원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민원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민원인 진정 유도 △촬영 고지 및 피해 상황 기록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과 민원인 대피 △문제 민원인 경찰 인계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다.

군은 관내 9개 읍·면사무소에서도 무안경찰서와 연계한 모의훈련을 오는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영 민원지적과장은 "민원 담당 직원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 추진
해남군, 근로자 고용 안정 기여

전라남도 해남군이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은 오는 7월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 증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일자리 증가율 5% 이상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증가, 300인 이상 기업은 일자리 증가율 5% 이상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1년에 대한 평가 기준은 2024년 7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고용환경 개선금 1400만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 한도 우대(2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융자 우대(5억원) △이자지원 금리 우대(1.4~2.5%)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면제(3년)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누리집 군정 알림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남=전연수 기자

전일보
@jnilbo
Kakao Talk : 전일보
E-Mail : jebo@jnilbo.com